

苛政猛於虎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무섭다

苛斂誅求 가혹히 세금을 거두고 재물을 빼앗다

苛: 가혹할 가 斂: 거둘 렴 誅: 벌 주 求: 구할 구

백성을 괴롭히는 포악한 정치를 이름 - 《예기(禮記)》

孔子過泰山側，有婦人哭於墓者而哀。夫子式而聽之，使子路問之，曰：“子之哭也，壹似重有憂者。”而曰：“然，昔者，吾舅死於虎，吾夫又死焉，今吾子又死焉。”夫子曰：“何爲不去也？”曰：“無苛政。”夫子曰：“小子識之，苛政猛於虎也。”《禮記》

공자와태산측, 유부인곡어묘자이애. 부자식이청지, 사자로문지, 왈: “자지곡야, 일사중유우자.” 이왈: “연, 석자, 오구사어호, 오부우사연, 금오자우사연.” 부자왈: “하위불거야?” 왈: “무가정.” 부자왈: “소자지지, 가정맹어호야.” 《예기》

공자가 제자들을 데리고 태산 기슭을 지나고 있을 때였다. 한 여인이 세 개의 무덤 앞에서 목놓아 울고 있었다. 수레 위에서 여인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던 공자가 제자 자로에게 그 까닭을 알아보라고 했다. 자로가 여인에게 다가가 물었다. “당신의 울음소리를 들으니 굉장히 슬픈 일을 당한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요?”

여인이 더욱 흐느끼며 답했다. “옛적에 시아버지가 호랑이에게 잡아 먹혔고 제 남편도 호랑이에게 당했는데, 이제 아들이 또 그것에게 죽었습니다.” 자로가 의아해 물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곳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여인이 이유를 설명했다. “이곳은 세금을 혹독하게 징수하거나 부역을 강요하는 일이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무거운 세금 때문에 그나마도 살 수가 없습니다.”

자로에게 여인의 말을 전해 들은 공자가 제자들에게 말했다. “잘 들어라.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니라.”

《예기(禮記)》에 나오는 일화로, 가렴주구(苛斂誅求)는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백성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는 것을 뜻한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도 가렴주구와 뜻이 같다. 민생도탄(民生塗炭) 도탄지고(塗炭之苦)도 가혹한 정치를 이르는 말이다.

刻舟求劍 : 뱃(舟)전에 새겨(刻) 놓은 물속으로 들어가 그 칼(劍)을 찾으려(求)고 함. 🚣배에 새기어 칼을 찾음. 시대의 변천을 모르고 융통성이 없이 어리석음.

· 출전 : 여씨춘추 신대람 찰금편(呂氏春秋 慎大覽 察今篇)

· 줄거리 : 초나라의 한 젊은이가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자 뱃전에 표시를 해 놓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 표시를 해놓은 물속으로 들어가 칼을 구하려 했다는 이야기.

楚人有涉江者 其劍自舟中墜於水 遽契其舟 曰 是吾劍之所從墜 舟止從其

所契者 入水求之 舟已行矣 而劍不行 求劍若此 不亦惑乎 以故法爲其國

與此同 時已徙矣 而法不徙 以此爲治 豈不難哉 『呂氏春秋』

초인유섭강자, 기검자주중추어수, 거계기주, 왈: "시, 오검지소종추." 주지, 종기소계자, 입수구지, 주이행의, 이검불행, 구검약차, 불역혹호. 이고법위기국, 여차동. 시기사의, 이법불사, 이차위치, 기불난재?-

초나라 사람으로 강을 건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칼이 배 한가운데로부터 물로 떨어져 버리자, 갑자기 그 배에 새기면서 말하였다. “여기가 내 칼이 따라서 떨어진 곳이다.” 배가 멈추자, 그 새긴 곳으로부터 물속에 들어가 칼을 찾았다. 배는 이미 흘러갔을 것이나 칼은 흘러가지 못하였으니 칼을 찾는 것이 이와 같다면 또한 미혹하지 않겠는가? 옛날의 법으로써 그 나라를 다스린다면 이와 더불어 같을 것이다. 시대는 이미 변하였으나 법을 고치지 않고 이로써 다스림을 삼는다면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管鮑之交 管仲 과 鮑叔의 사귄(교우)

管仲夷吾者，潁上人也。少時常與鮑叔牙游，鮑叔知其賢。管仲貧困，常欺鮑叔，鮑叔終善遇之，不以爲言。已而鮑叔事齊公子小白，管仲事公子糾。及小白立爲桓公，公子糾死，管仲囚焉。鮑叔遂進管仲。管仲既用，任政於齊，齊桓公以霸，九合諸侯，一匡天下，管仲之謀也。

管仲曰：“吾始困時，嘗與鮑叔賈，分財利多自與，鮑叔不以我爲貪，知我貧也。吾嘗爲鮑叔謀事而更窮困，鮑叔不以我爲愚，知時有利不利也。吾嘗三仕三見逐於君，鮑叔不以我爲不肖，知我不遭時也。吾嘗三戰三走，鮑叔不以我爲怯，知我有老母也，公子糾敗，召忽死之，吾幽囚受辱，鮑叔不以我爲無恥，知我不羞小節而恥功名不顯于天下也。生我者父母，知我者鮑子也。”
＜管晏列傳＞

관중(管仲) 이오(夷吾)는 영수(潁水) 유역의 사람이다. 젊어서 포숙아(鮑叔牙)와 교제하였으며, 포숙은 그의 현명함을 알아주었다. 관중은 가난해서 항상 포숙을 속였으나 포숙은 끝까지 그를 잘 대해주고 속인 일을 말하지 않았다.

그 후 포숙은 제나라 공자 소백(小白)을 섬기고 관중은 공자 규(糾)를 섬기게 되었다.

소백이 환공(桓公)으로 즉위하면서 싸움에서 진 공자 규가 죽자 관중은 잡히어 옥에 갇히게 되었다. 포숙은 곧 관중을 천거하였다. 관중은 등용되어 제나라에서 국정을 맡게 되었다.

제 환공은 패자가 되어 여러 차례 제후들과 회맹하여 혼란스러운 천하를 바로잡았으니 모두 관중의 지모 덕분이었다.

"내가 어릴 적 곤궁할 적에 포숙과 함께 장사를 할 때, 이익의 분배를 내가 포숙보다 더 많이 가져갔는데 포숙은 나를 탐욕스럽다고 여기지 않은 것은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알아주었기 때문이었고,

벼슬 길에 올라 많은 실수로 사람들은 나를 어리석다고 했지만 포숙은 나를 무능하다 하지 않고 때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알아주었다.

또한 내가 포숙아와 함께 전쟁터에 나갔을 때, 내가 세 번이나 도망을 치자 사람들은 나를 비겁하다고 질책했지만 포숙아는 내가 집에 연로한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이라고 알아 주었고,

또 나와 포숙아가 제나라의 두 공자인 규(糾)와 소백(小白)의 사부가 되었다가 내란에서 공자 규를 모시던 내가 공자 소백에게 패하여 참수형의 위기에서 포숙아의 설득으로 목숨을 구하고 오히려 재상의 자리까지 나에게 물려주어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나를 알아주었다.

결국 나를 나아주신 분은 부모님이지만 나를 진정으로 알아준 이는 포숙아이다."

兔死狗烹 [토끼 토/죽을 사/개 구/삶을 팡]

☞ 토끼가 죽으니 사냥개가 삶아진다. 필요가 없게 되면 죽임을 당하거나 버림을 받게 된다.

[원] 狡兔死 走狗烹(교토사 주구팡)

[출전] 『史記』, 淮陰侯傳

[내용] : 한신(韓信)은 漢나라가 천하통일을 하는데 큰 공을 세워 그 공로로 초왕(楚王)이 되었는데 항우의 신하로 있을 때 사권 친구 종리매(鍾離昧)가 그에게 의탁하고 있었다.

유방은 종리매가 한신 밑에서 숨어지낸다는 것을 알고 체포명령(逮捕命令)을 내렸으나 한신은 차마 어찌할 수가 없었다. 유방이 화가 나 한신을 체포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종리매는 자결하였다.

한신은 죽은 그의 목을 바쳤으나 체포당하자「한신이 말하기를 과연 사람들의 말과 같도다. 교활한 토끼가 죽으니 달리던 개가 삶아지고 높이 나는 새가 다하니 좋은 활이 사장된다. 적국이 파괴되니 지혜로운 신하가 죽고 천하가 이미 평정되었으니 나는 진실로 삶아지는 것이 당연하다.

[원문] 韓信曰 果若人言하다. 狡兔死하니 走狗烹이요 高鳥盡하니 良弓藏이라.
敵國破하니 謀臣亡이라하고 天下가 已定하니 我固當烹이라.

** 狡(교활할 교) 筌(통발 전) 藏(감출 장) 謀(꾀할 모) 當(마땅 당)

多多益善: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

출처: 《史記(사기)·淮陰侯列傳(회음후열전)》

〈원문〉

上常從容與信言諸將能不，各有差。上問曰：“如我能將幾何？”信曰：“陛下不過能將十萬。”上曰：“於君何如？”曰：“臣多多而益善耳。”上笑曰：“多多益善，何為為我禽？”信曰：“陛下不能將兵，而善將將，此乃言之所以為陛下禽也。且陛下所謂天授，非人力也。”

황상은 평소에 한신과 함께 여러 장군들의 우열을 토론하여, 각자에게 장단점이 있음을 간파하였다. 황상이 한신에게 물었다. “나의 재능으로는 군사 몇 명을 통솔할 수 있는가?” 한신이 말했다. “폐하는 단지 군사 10만을 통솔하는데 불과합니다.” 황상이 말했다. “그대는 어떨가?” 대답하기를, “많을수록 더욱 좋습니다.” 황상이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어째서 아직 나의 포로가 되었는가?” 한신이 말했다. “폐하는 군대는 통솔하지 못하지만, 장수들을 거느리는 것은 통달했으므로, 이것이 곧 말하자면 제가 폐하의 포로가된 까닭입니다. 또 폐하의 능력은 선천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노력한 후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結草報恩 [맺을 결/풀 초/값을 보/은혜 은] 𦵏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

- ① 죽어 혼이 되더라도 입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
- ② 무슨 짓을 하여서든지 잊지 않고 은혜에 보답하겠다.

[유] 刻骨難忘(각골난망)/ 難忘之恩(난망지은)/ 銘心不忘(명심불망)/ 白骨難忘(백골난망)

[속담] 머리털 베어 신을 삼는다. / 털을 뽑아 신을 삼겠다. / 개 새끼도 주인을 보면 꼬리를 친다.

[출전] 『左傳』

[원문]

秋，七月，秦桓公伐晉，次于輔氏，壬午，晉侯治兵于稷，以略狄土，立黎侯而還，及雒，魏顆敗秦師于輔氏，獲杜回，秦之力人也，初，魏武子有嬖妾，無子，武子疾，命顆曰，必嫁是，疾病則曰，必以為殉，及卒，顆嫁之，曰，疾病則亂，吾從其治也，及輔氏之役，顆見老人，結草以亢杜回，杜回躓而顛 故獲之，夜夢之曰，余，而所嫁婦人之父也，爾用先人之治命，余是以報。

[해석] 기원전 594년 가을 음력 7월에 진(秦)환공이 진(晉)의 정벌을 위해 출병하여 진(晉)의 보씨에서 주둔하였다. 임오일에 진경공(晉景公)이 직에 출병, 적(狄)을 점령하여, 여후를 세우고 돌아왔다. 낙에 이르렀을 때, 위과가 보씨에서 진(秦)의 군대를 격파하고, 진(秦)의 대역사(大力士)인 두회를 포로로 잡았다.

당초에 위무자에게 한 애첩이 있었지만 아들이 없었다. 위무자가 병에 걸리자 아들 위과에게 분부하여 말했다. “(내가 죽은 이후에) 그녀를 반드시 시집보내야 한다.” 병이 위급해지자 다시 말했다. “반드시 그녀를 순장해야 한다.” 위무자가 죽자, 위과는 그녀를 시집보내며 말했다. “중병으로 정신이 혼란하여, 그분이 정신이 맑을 때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보씨에서 전투를 할 때, 위과는 풀을 엮어서 두회를 저지하는 한 노인을 보았다. 두회는 땅에 넘어져 포로로 잡혔다. 밤에 노인이 꿈에 나타나 말했다. “나는 그대가 시집보낸 그녀의 부친인데, 그대가 그대의 선친께서 정신이 맑을 때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내가 보답을 하는 것이오.” 《춘추좌씨전》